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당나라 시인 두보는 시성(詩聖)으로 불린다. 그러나 그는 한평생 곤궁하게 살았다. 마흔을 넘어 지방의 말단 관리에 오르기까지 그와 가족은 거지 신세나 다름없었다. 아침에는 장안의 부잣집 문을 두드리고, 저녁에는 귀한 집 자제들이 타고 다니는 말의 먼지를 털어주며 그들이 남긴 술과 식은 고기를 얻어먹는 생활을 10년 넘게 했다. 두보는 자신이 겪었던 삶의 질곡과 민초들의 아픔을 작품 속에 그려 넣었다.

‘붉은 대문 안에는 술과 고기 냄새 진동하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두보를 읽으며 유시민을 생각하다

이의 뼈가 뒹굴고 있구나’ 이 구절은 그의 장시 ‘장안으로부터 봉선현에 가며 회포를 읊다’에 나오는 데, ‘우위술부주조참군’이라는 말직을 겨우 얻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지었다. 현종과 양귀비는 여산에서 온천을 즐기며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권력가들의 집에는 고기와 술이 넘쳐나 썩어가는데 길거리에는 굶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두보의 충(忠)은 황제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그는 백성의 안위가 곧 국가의 번영이라는 초기 유가의 민본정신에 입각해서, 황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적 충성’은 당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사대부의 태도였다. 오랜 기간 궁색하고 구차한 유랑생활을 통해 두보는 현실을 꿰뚫어 보는 안목과 부

당한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사고를 키웠다. 엄혹한 전란의 참상을 직접 겪으며 기록한 시, 즉 두보의 시사(詩史)는 사상적인 면에서 진보적이었다. 하지만 부당한 세상을 바꾸려는 그의 포부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집권자들에게 냉대를 받는 발미가 되기도 했다.

중국 허베이대학(河北大學)의 한성무(韓成武) 교수가 펴낸 ‘두보평전’은 두보가 남긴 시를 취합해서 그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 평전을 읽노라니 유시민 작가가 떠올랐다. ‘현실과의 불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두보와 유시민이 가진 작가 정신이다. 고결한 도덕성과 민중에 대한 애정 때문에 두보는 평생 대륙을 떠돌다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유시민 작가는 자신의 소신과 비판적 목소리 탓에 학생 시절 투옥은 물론 이후 정치적 부

침과 대중적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한 침묵’보다는 ‘고통스러운 발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진보적 지식인의 전형을 보여준다.

천하를 근심하던 두보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벼슬자리를 탐내지 않았다. 그가 후폭풍을 각오하고 직언을 했던 이유는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함이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던진 논란의 화두는 필자에게는 두보의 고민과 겹쳐 보인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행보를 두고 ‘핵심 지지층을 허무는 재건축’이라 비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타협 없는 폐지를 요구한 바탕에는 두보의 우환의식(憂患意識)을 엿볼 수 있다. 민주진영 내부에 나타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진단 또한 나라의 운명을 염려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설

보이스피싱 신종 수법 등장 주의 요구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고령층을 노린 기관사칭형 범죄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도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7건보다 51.5% 감소했다. 피해액도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34억원으로 48.9% 줄어 전국 평균 감소율 44%보다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올해 피해자 31명 가운데 50대 이상은 19명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범죄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기관사칭형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54건에서 올해 31건으로 감소했지만 건당 피해액

은 지난해 6750만원에서 올해 8011만원으로 18.7% 증가했다. 최근에는 기존 수법에서 벗어나 행정절차를 악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도나 정책자금 지원 안내 등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변형수법까지 확인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주요 유형을 알고 기본적인 예방수칙만 지키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메시지를 받았다면 ‘확인 전 송금 금지, 개인정보 제공 금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개인 금융정보를 절대 알려주면 안 된다. 의심될 땐 관련기관에 반드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열린마당

무더위 속 안일함, 에어컨 실외기 안전점검 먼저



신 영 범
제주성산119센터 소방장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며 가정과 상가에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더위를 식혀주는 에어컨은 필수 가전이지만, 편리함 뒤에는 위험이 있다. 바로 에어컨 실외기 화재다.

여름철 실외기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와 관리 소홀에서 시작된다. 폭염이 이어지는 시기에는 실외기가 장시간 고온 상태로 가동되면서 전선 과열, 먼지 축적, 전기적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외기는 많은 열을 배출하는 장치인 만큼 통풍이 원활하지 않으면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베란다나 좁은 공간에 설치한 뒤 주변에 종이박스, 스티로폼, 비닐 등 가연물을 쌓아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전선 상태다. 장기간 접점하지 않은 제품은 전선 피복 손상이나 접속 불량으로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다. 허용전력을 초과한 연결은 과부하 위험이 크므로 에어컨은 반드시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외기 내부와 환풍구에 쌓인 먼지는 열 배출을 방해하고 과열의 원인이 된다.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두면 통풍을 막아 과열될 수 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은 가족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화재가 인접 세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 전 점검과 안전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점검이 우리 가정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김성범 의원, ‘세종행’ 성과 주목

기획예산처 직접 방문

○…김성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지역 현안 국비 반영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예산처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자 해당 부처 공직자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

김 의원은 지난 6일 세종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를 방문해 예산 실장을 비롯해 예산총괄심의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지역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과학기술혁신예산과, 행정외교예산과,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등 담당 과장들과 릴레이로 실무협의를 진행.

국회의원이 현안 또는 예산 협의를 할 때는 통상 세종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국회로 상경하는 일이 일반적이라 김 의원의 방문이 낯설었다는 평가. 부미현기자

자치경찰단, 폭염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중산간 지역에서 ‘폭염 대응 주민안전 특별순찰’을 실시.

8일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86명으로 2024년과 2025년에는 사망자도 발생했으며 특히 온열질환은 대부분 농작업 등 실외활동 중 발생하는 만큼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한 상황.

이에 자치경찰단은 폭염 취약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산간 마을과 농경지를 집중 순찰하며 고령 농업인과 단독 농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주요 농작업 시기에 맞춰 구좌·성산, 애월·한림, 표선, 대정 등 중산간 농경지를 권역별로 점검. 박소정기자

장맛비에 폭염… 사각지대 없는지 살펴야

제주에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최근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해보다 다소 늦긴 했지만 첫 열대야도 나타났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제주에서만 온열 질환자가 1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분간 폭염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온도가 33℃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는 예보다. 장마철 폭우 걱정에 더위까지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르신,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 대상자별 온열 질환 예방 행동 요령을 개별에 배포했다. 어르신들에겐 집 근처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고 냉방 기기가 없거나 낮 시간대에는 그곳을 이용하라고 했다. 또한 갈증을 느끼지 않

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어린이들은 보호자 없이 잠시라도 자동차 안이나 밀폐 공간에 혼자 있지 않기 등을 당부했다.

폭염 대비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더운 날에도 생계를 위해 야외 활동을 해야 하거나 발일에 나서는 고령의 농업인 등이 있어서다. 특히 농민들은 야외에서 오랜 시간 작업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후 변화로 매년 여름철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가 중요해졌다. 도내 무더위 쉼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주변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지역 공동체의 관심으로 이 여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장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율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지·문중모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모지관리·모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